

“선배들 기에 놀리지 않으려 노력”

광복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

티파니, SNS서 '육일기' 이모티콘 사용 논란 사과



tvN '굿 와이프' 김단연 나 두번째 작품만에 '인생작' 만나

tvN 법정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기자는 여주인공 김혜경 역의 전도연이다. 하지만 가장 추가가 급등한 이를 꼽으라면 김단연의 나나일 것이다. 출연작이라고는 중국 드라마 한 편밖에 없던 이 신출내기 연기자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단박에 시청자 눈에 들었다.

나나(25)는 두번째 작품인 '굿 와이프'를 자신의 '인생작'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김단연보다는 더 말괄량이 소녀 같은 나나와 연기 이야기를 한동안 주고 받았다.

◇“전도연 선배와 함께 연기하니 정말 복 받았죠”=나나는 지난 6월29일 열린 '굿 와이프' 제작발표회에서 전도연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꼽은 바 있다. '칸의 여왕'은 까마득한 후배에게 실제로 '특급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배우들이 처음 모여서 대본을 읽었는데 다들 제 상상과는 다른 연기와 리액션(반응)을 해서 무척 당황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전도연 선배와 붙는 장면이 많은데 순간순간 당황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나나는 '대담하게도' 전도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나는 '대사를 한 번 같이 맞춰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지만, 대선배가 시간을 내줄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도연은 나나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곧바로 다음 날 마주앉은 둘은 5시간 동안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 내려갔다.

“전도연 선배가 제 연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기 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네 연기를 돋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곤 했어요. 함께 고민한 다음에 카메라 앞에 섰죠.”

11년 만에 TV 드라마에 복귀한 전도연은 첫 촬영 날에도 “나도 너랑 같은 처지야”라는 말로 나나를 복돋았다. 대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정호 PD에게 질문을 게을리하지 않는 전도연 모습도 나나에게 좋은 자극제였다.

MJ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변호사 김혜경

(전도연 역)과 조사원 김단(나나)의 찰떡 호흡은 그렇게 탄생했다. 전도연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나나의 눈빛에서는 진심으로 고마움과 존경심이 느껴졌다.

“어떻게 제가..... 전도연 선배와 함께 연기라니 정말 복받았죠.”

◇“기 죽으면 안 된다 생각으로 연기했죠”=“굿 와이프”에는 전도연 말고도 쟁쟁한 배우들이 여럿 등장한다.

유지태는 김혜경의 남편이자 하루아침에 추락한 검사 이태준으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이태준-김혜경 부부와 대립하는 최상일 차장검사 역의 김태우와 카리스마 넘치는 MJ 법률사무소 대표 서명희 역의 김서형도 제 몫을 충실히 하는 이들이다.

나나는 “(늘 자신만만함) 김단이라면 여기서 기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기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지태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연기에 좀 적응을 하고, 김단이라는 캐릭터를 마음으로 많이 받아들였을 때쯤 유지태 선배와 호흡을 맞추게 돼서 다행이었다”고 답했다.

서중원 변호사 역의 윤계상도 나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때 그룹 지오디(god)로 인기를 끌었던 윤계상은 2004년 팀에서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했다.

“윤계상 선배가 자신도 아이돌 출신 이미지를 벗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이해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더 노력해야 하겠지만 기 죽지는 말라고 격려해 줬어요.”

나나는 '굿 와이프'를 통해 연기자로서 작지만 큰 발걸음을 뒀다. 그는 벌써 김은숙 작가의 신작 '도깨비'(tvN) 오디션까지 봤을 정도로 새 원석을 잡으려는 방송가의 구에도 뜨겁다.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며 “모험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나나의 모습은 매우 당차 보였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많이 하라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잘 못 할 것 같은 캐릭터라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역을 소화한다면 또 김단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정해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나나에게 가장 함께 연기하고픈 남배우는 누구냐는 물음을 마지막으로 던졌다. 조진웅을 꼽으며 살짝 부끄러워하는 나나에게서는 다시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연합뉴스

그를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가 광복절에 '일장기' 이모티콘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티파니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소중한 날에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러한 실수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티파니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장기 이모티콘이 표시된 사진을 올려 광복절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은 이모티콘 사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스냅챗'에 일본 전범기(육일기) 무늬와 함께 '도쿄 재팬'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사진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자 삭제했다.

/연합뉴스



영화 '터널' 개봉 6일만에 '300만' 돌파

한국영화 '빅4'의 마지막 주자인 '터널'이 개봉 6일째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성수기 극장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15일 영화 배급사 쇼박스 등에 따르면 '터널'은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 누적 관객 수가 300만2844명으로 집계됐다. 개봉 6일째 관객 300만 명 돌파는 앞서 개봉한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관객 동원 속도다.

'터널'은 주연 배우인 하정우의 '원맨쇼'에 가까운 연기와 김성호 감독의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상영관의 좌석 수 대비 관객 수 비율인 좌석 점유율이 13일 68.7%와 14일 73.2%로 전체 상업영화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터널'은 '부산행'(7월20일), '인천상륙작전'(7월27일), '덕혜옹주'(8월3일)에 이어 마지막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빅4'로, 성수기 후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여기는 리우 <베트남, 탁구, 육상>	00 2016 리우올림픽 <베트남, 다이빙>	00 리우 2016 <탁구, 배드민턴>
7	50 여름특선 앙코르 인간극장(재)		00 MBC 뉴스투데이 25 2016 리우올림픽 <탁구, 배드민턴, 육상>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15 KBC 모닝와이드 30 리우 2016 <배드민턴, 탁구>
8	25 아침마당			
9	30 KBS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생생정보스페셜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TV 블로그 품지락 05 아이엠 풍니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12	10 루키(재)	00 MBC 정오뉴스 2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	00 SBS 12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00 사람과 사람들(재)	35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크(재)	00 TV속의 TV	00 TV블로그 품지락 05 특집다큐멘터리 문명 55 닥터 365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깨달음캠프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이웃집 찰스(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집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여기는 리우 <베트남, 레슬링, 육상 등>	55 2016 리우올림픽 <베트남, 레슬링 등>	00 리우 2016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리우 2016 <베트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6 리우 올림픽 <축구(여) 준결승>			10 리우 2016 <베트남, 레슬링>
12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신비의 섬, 래(Rai)>
05:30 건강안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새우 달걀찜과 차돌박이 냉채>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태마행 <대자연의 환상곡, 노래예를 달린다 2부>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서바이벌 어드벤처>	11:20 세계태마기행(재)	15:30 피터 래빗	21:30 한국기행 <여름의 맛 2부 뜨거워야 제맛이지>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청춘, 사라진 100년 그들의 목소리>
07:00 레이디 비그	12:40 지식채널e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한타 VS 브라이언>
07:30 로보카 폴리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00 코코몽3	23:35 시대공간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35 뷰티풀 코리아 <지리산에 봄들면>	16:30 코코코 다크(재)	
08:00 뽀롱뽀롱 유치원1~3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45 뽀롱뽀롱 유치원1~3(재)	
08:45 코코코 다크	13:50 원더볼츠 <지리산에 봄들면>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0 코코몽3	14:00 로보카 폴리	17:45 로보카 폴리	
09:30 원더볼츠	14:0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내 아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법>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레이디 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음 7월 14일 庚午)

子	48년생 춘분하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60년생 어차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72년생 가려서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다. 84년생 순조로운 진행이 계속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32	午	42년생 준수해야 할 것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54년생 위기 관리 능력이 요망된다. 66년생 기막은 잡혀있지만 얼마든지 변 수는 있다. 78년생 재구성하여 종합할 수 있는 여유와 기량이 절 실하다. 행운의 숫자 : 24, 45
丑	49년생 쏟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 담도록 하자. 61년생 듣기 에 좋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형이다. 73년생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하리라. 85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화 중지병에 불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9, 41	未	43년생 성과물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리라. 55년생 불만하 다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니라. 67년생 쓴맛을 보게 되리 라. 79년생 자서히 살펴본다면 미처 헤아리지 못한 허점들이 드 러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21
寅	50년생 마지막 고비이니 최선을 다하고 보아야겠다. 62년생 삼 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천하리라. 74년생 전문적인 식견을 필 요로 하는 단계이다. 86년생 합목적적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세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77	申	44년생 특히 되돌아가는 마당으로 향할 때 조심하자. 56년생 활 용한다면 획기적인 생산 효과가 있다. 68년생 진중하게 기다려 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80년생 기대 해했던 바가 돌변할 수도 있 는 동랑이다. 행운의 숫자 : 95, 23
卯	51년생 핵심 사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3년생 평 소에 예상해 왔던 바대로 펼쳐지겠다. 75년생 골고루 살펴 보아 야만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87년생 실제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 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69, 46	酉	45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57년생 오늘 처 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자질을 잃게 된다. 69년생 마음에 내키 지 않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81년생 용기 있게 추진하면 흥 사도 비껴 간다. 행운의 숫자 : 07, 35
辰	40년생 관리에 철저 하라. 52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4년생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하다. 76년생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형태로 정립되는 판세이다. 88년생 내 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0, 36	戌	46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58년생 안도하기에는 이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70년생 전혀 의 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82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98
巳	41년생 현실하게 보였던 것이 허할 것이다. 53년생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65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77 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89년생 가 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88, 52	亥	47년생 명에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59년생 징 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71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 고 언행이 바람직하다. 83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 으니라. 행운의 숫자 : 11,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